어느 길에서 본 고양시의 천사

글 김규근(고양시 일산서구)

회사의 급한 일로 사무실을 나선 찰나,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할머니가 보였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겁게만 보이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종이박스 같은 폐지와 고물을 모으는 할머니이신 듯했다. 그때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급한 마음으로 길을 건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두는 순간, 손수레가 멈춰서버렸다. 오르막길이었다. 고물을 잔뜩 실어 무겁기만 한 손수레를 끌던 중 할머니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오르막을 맞딱뜨린 거였다.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적이 무섭게 울려퍼졌다.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지 못한 채 길을 막고 서있는 할머니에게 빨리 비키라는 짜증 섞인 소리였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께 달려가 손수레를 밀어주지 않았다. '이걸, 어쩌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나? 지금 빨리 안 가면 거래처 끊겨버릴 텐데…….'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드리면 저 꼭대기까지 최소한 10분은 더 걸릴 터였다.

그때였다. 할머니 뒤쪽에서 다가서던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그 안에서 운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용수철같이 빠른 몸놀림으로 다가가 "할머니, 비켜보세요"라며 직접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아,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다행이다.'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윽고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트럭 운전기사의 행동에 경외심도 생겼다. 본인도 무척 바빴을 텐데 차를 옆에 세워두고 내려와 손수레를 끌어준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 우리 고양시가 아직 따뜻하고 이웃을 향한 정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그 트럭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운전 기사님,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손수레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